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천만년 높이 받들어 모시렵니다



새 년 정 김 은

사랑하는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동포형제자매들!
동지들과 벗들!

우리는 지울수 없는 또 한번의 역사의 깊은 발자취를 남기며 조국과 혁명, 민족사에 뜻깊은 사변들이 아로새겨진 2018년을 보내고 희망의 꿈을 안고 새해 2019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에 즈음하여 나는 격동적인 지난해의 나날들에 우리 당과 숨결과 보폭을 함께 하며 사회주의건설위업에 헌신하여온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리며 온 나라 가정들에 사랑과 희망, 행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가기 위하여 우리와 마음을 같이한 남녘겨레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새해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사회적정보와 발전,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노력하고있는 각국의 수반들과 벗들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지들!

2018년은 우리 당의 자주로선과 전략적결단에 의하여 대내외정세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력사적인 해였습니다.

지난해 4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는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에 토대하여 우리 혁명을 새롭게 상승시키고 사회주의의 전진속도를 계속 높여나가는데서 전향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지니고 간고한 투쟁의 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은 자주권수호와 평화번영의 굳건한 담보를 제손으로 마련하고 부강조국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혁명적대진군에 떨쳐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 평화에로 향한 기류가 형성되고 공화국의 국제적권위가 계속 높아가는 속에 우리 인민은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성대히 경축하였습니다.

9월의 경축행사들을 통하여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와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실현하고 튼튼한 자립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을 가진 우리 공화국의 위력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려는 영웅적조선인민의 강렬한 의지를 세계앞에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전체 인민이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 떨쳐나 자립경제의 토대를 일층 강화하였습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토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의미있고 소중한 전진이 이룩되었습니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전력생산능력이 훨씬 늘어나고 김철과 황철을 비롯한 금속공장들에서 주체화의 성과를 확대하였으며 화학공업의 자립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만들어낸 공지와 보함으로써 보기가만 해도 흐뭇한 각종 류전기계들과 경공업제품들의 질적수준이 한계дан 도약하고 대량생산되어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석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 자립경제의 생명선을 지켜 결사적인 생산투쟁을 벌였으며 농업부문에서 알곡증산을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한 결과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다수확을 이룩한 단위들과 농장원들이 수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군수공업부문에서는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여러 가지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당의 웅대한 구상과 작전에 따라 로동당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방대한 대건설사업들이 립체적으로 통이 크게 전개됨으로써 그 어떤 난관속에서도 끄떡없고 멈춤이 없으며 더욱 노도와 같이 떨쳐 일어나 승승장구해나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역센 기상과 우리의 자립경제의 막강한 잠재력이 현실로 과시되었습니다.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는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부문에서 첨단산업의 발전을 추동하고 인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내놓았으며 교육의 현대화, 과학화가 적극 추진되고 전국의 많은 대학과 중학교, 소학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문화예술부문에서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창작공연하여 대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주체예술의 발전면모와 특유와 우월성을 뚜렷이 시위하였습니다.

동지들!

혁명의 년대기에 자랑찬 승리의 한페지를 새긴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우리 국가의 불패의 힘에 대하여 다시금 확신하게 되

었습니다. 부정의의 도전을 맞아아나가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우리 국가의 자강력은 끊임없이 육성되고 사회주의강국에로 향한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당을 따라 승리의 길을 멈춤없이 달려 조국청사에 빛나는 위훈을 세운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싶습니다.

동지들!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속에서 더욱 세련되고 역세어진 우리 당과 인민은 보다 큰 신심과 포부를 안고 새해의 진군길에 나섰습니다.

올해에 우리앞에는 나라의 자립적발전능력을 확대 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진일보를 위한 확고한 전장을 열어놓아야 할 투쟁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회주의의 더 밝은 앞날을 자력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힘과 토대, 우리 식의 투쟁방략과 창조방식이 있습니다.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틀어쥐고 자력갱생, 견인불발하여 투쟁할 때 나라의 국력은 배가될것이며 인민들의 꿈과 리상은 훌륭히 실현되게 될것입니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구호입니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진 로정에서 언제나 투쟁의 기치가 되고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여온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의 전진선에서 혁명적양양을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 습니다.

우리는 자체의 기술력과 자원, 전체 인민의 높은 창조정신과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국가경제발전의 전략적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며 새로운 장성단계에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전반을 정비보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적인 작전을 바로하고 강하게 집행해나가야 하겠 습니다.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요소와 동력을 살리기 위한 전략적대책들을 강구하며 나라의 인적, 물질자원을 경제건설에 실리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합니다. 국가경제사업에서 중심을 틀어쥐고련쇄고리를 추켜세우며 전망적발전을 도모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 2019년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사회주의조국의 영광스러운 70년력사에 특기할 민족사적사건들로 2018년을 자랑스럽게 빛내고 희망찬 새해 2019년을 맞이한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에 넘쳐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 2019년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 내각총리를 비롯한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중앙위원회, 정권기관, 내

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무력기관 책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영상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천만년 길이 모셔갈 인민의 총정이 뜨겁게 흐르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새해 2019년에 즈음하여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와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을 찾으시어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새해의 인사를 드리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을 찾으시어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새해의 인사를 드리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공화국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고 온 겨레와 전세계를 격동시키는 력사의 순간순간들로 날과 달이 흐른 2018년을 크나큰 궁지속에 돌이켜보면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받들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뜻깊은 새해에 보다 큰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제4차 전국농업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제4차 전국농업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자나깨나 뵈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게 된 크나큰 기쁨으로 하여 회의참가자들은 뚫어

오르는 걱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을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며 나라의 농업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열광

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평생 농장길, 포전길을 쉬임없이 걷고걸으시며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해결을 위해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사회주의전야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하

여 깨끗한 량심과 애국의 구슬땀을 묻어가는 농업근로자들과 농촌초급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여 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 근로자들에게 다음해 농사를 더 잘 지어놓고 다시 만나자고 따듯이 고무격려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회의참가자들이 농업전선을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으로 정해진 당중앙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다수확농장, 다수확작업반, 다수확분조, 다수확농장원대렬을 끊임없이 늘어 온 나라에 알곡증산의 승전고를 더 높이 울려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번영하는 나라

조선에는 세계가 인정하는 《특허무기》가 있다. 핵무기보다 비할바없이 강하고 물리적으로는 그 위력을 계산할 수 없는 조선특유의 이 무기가 바로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다. 수십년간 적대세력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에서 조선이 승리해올 수 있었던 것도,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주저앉았을 최악의 역경속에서 나날이 국력이 강화되고있는 것도 그 바탕에는 일심단결이라는 거대한 힘이 놓여있다. 지난해에도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제압박책들은 극도로 달랐다. 그러나 공화국을 굴복시키지 못했다. 날과 달, 계절을 이어가며 비약과 승리의 통장훈을 부른것은 조선이었다. 경에 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2018년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승리의 해로 될것이라고 확인하신것처럼 조국은 어김없이 2018년의 승리라는 절대값을 산출하였다. 조선의 일심단결, 이는 모든 기적과 비약의 원동력이고 승리의 근본원천이다. 령도자는 인민을 위해 헌신의 자욱을 이어가고 인민은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령도자와 인민이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 숨결도 하나가 되어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가는 바로 이것이 남들이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고 오직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일심단결의 송고한 화폭이다. 지난해의 첫아침에 새해의 장엄한 진군길이 시작되는 이 시각 인민의 지지를 받고있기에 우리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확신으로 마음이 든든하다시며 전력을 다하여 인민의 기대에 거어 보답할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한해 인민을 위한 헌신적부무의 길을 걸으시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느라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걸으신 삼복철의 강행군길이 어려오고 그 길에서 꽃피난 인민사랑의 화폭들이 가슴을 뜨겁게 해준다.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인민들은 엄격한 검열관, 심사관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질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도록 생산자들을 고무추동해주시었다. 금산포탈갈가공공장에서 생산한 것갈제품을 보시면서는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한술이라도 보탬을 주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궁지와 보람이 차넘친다고 것처럼 기뻐하시었다.



뜻깊은 새해가 밝아왔다. 누구나 지나온 나날들에 대한 감회깊은 추억과 매일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살레이게 하는 1월 1일이다. 이날을 맞으며 사람들 누구나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하며 모든 일이 다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있다. 하지만 이 모든 꿈과 희망은 바란다고 하여 다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세계의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정치적불안정과 사회적갈등, 민족간 분쟁과 경제위기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사회발전이 억제당하였다. 이 나라들에서 매일에 대한 불안과 위구심으로 때는 새해라하여 땅에 밝아온 새해는 앞날에 대한 새로운 꿈과 희망, 즐거움과 광만속에 맞이하는 기쁨의 새해, 행복의 새해로 되고있다. 하다면 공화국인민들의 이 기쁨과 광만은 어디서 오는것인가. 그것은 새해에도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이 만방에 떨쳐지고 인민들의 복리가 더욱 증진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에서 오는것이다. 지난해에 공화국에서는 령도자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더욱

굳게 뭉치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령도자와 생산운명을 같이 하려는 전체 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더 높이 발휘되었다. 세계의 커다란 관심속에 성대하게 진행된 공화국창건 70주년 경축행사가 그것을 잘 보여주었다. 세계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의 세계가 송고한 경지에서 생동한 화폭으로 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어있다. 이런 신심과 락관에 넘쳐 맞이하는 2019년이라는 새해의 이 아침 사람들의 가슴마다 민족적자긍심과 자부심, 래일에 대한 포부와 광만이 가득 넘쳐나는것 아니라. 어찌 이뿐이랴.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보다 큰 기적과 전변을 안아오게 될 새해의

희열과 광만에 넘쳐

첫대문에 들어선 기쁨으로 하여 더욱 궁지로온 2019년이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도 공화국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봉쇄책들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공화국은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력갱생의 가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경제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자력갱생의 창조대전이 힘있게 벌어져 온 나라 방방곡곡에 인민의 웃음넘치는 행복의 창조물들이 련이 일떠서고 어디서나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 퍼진 잊지 못할 2018년이었다.

송고한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를 떠나가는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새해에도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이 더 높이 떨쳐지고 이 땅에 련의 력사가 계속되리라는것을, 본사기자 박철남

사람들은 지난해 물물에서 진행된 제9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여러개의 금메달을 쟁취하고 람홍색공화국을 휘날린 4련승 태권도세계선수권보유자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있다. 세계가 공인하는 국제태권도 3단을 소유한 그는 평안북도 태권도선수단의 인민체육인 김향심선수이다. 얼마전 평안북도 태권도선수단을 찾은 우리는 김명세감독으로부터 음악선동이었던 김향심이 태권도 강자로 성장하는 나날에 대하여 들을수 있었다. 10여년전 신의주시 본부동의 한 아바트빌에서 땀줄을 가지고 재봉을 부리는 12살 난 소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사람이 있었다. 도태권도선수단 감독인 김영세였다. 꼭 다물린 입, 얼굴에 흐르는 땀과 굳센 의지가 내뻐인 눈매... 특이한 그 인상에서 남다른 점을 찾아본 감독의 얼굴에 미소가 어렸다. 이렇게 되어 신의주에 출학원(당시) 소학반에 다니던 김향심은 남자들도 선듯 발을 들어놓기 주저하는 무도기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무도의 기초를 닦고 선수생활을 시작한 김향심은 과중한 육체적부담을 이겨내며 기술

련과제들을 막힘없이 수행해내군 하였다. 그럴수록 감독의 요구성과 훈련강도는 점점 높아졌다. 너무 힘들어 훈련도중에 쓰러진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를 사러물고 일어서군 한 김향심선수였다. 나약한 소리 한번 입에 올릴 줄 모르는 영악스러운 향심에게 온 선수단이 선망과 기대어린 눈길을 보냈다. 그 기대속에 제5차 아시아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날이 왔다. 국제경기경험이 없는 조선의 나이린 신수가 맞서기경기에 나서자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승패를 예측하였다. 하지만 상상밖의 광경이 경기장에 펼쳐졌다. 그는 좌우뛰어 돌며 차기동작으로 상대선수를 보기좋게 물리쳤다. 최우수상컵을 안고 우승의 시상대에 올라선 그의 앞가슴에 금메달이 번쩍이었다. 그 후 김향심선수는 벨라루스에서 진행된 제9차 청소년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뛰며 둘러차기, 좌우뛰어 돌며차기 등 반라격의 위력한 동작으로 세계적인 강자들을 물리치고 또다시 우승하였다. 여러개의 금메달을 쟁취한 제8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하여 제17차, 제18차, 제19차,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 이르러까지 그의 앞가슴에 많은 금메달들이 안겨지고 세계의 하늘가에 애국가의 선율이 울려 퍼졌다. 세계태권도계의 거물이란 유럽의 한 감독이 57kg급 3단틀경기와 다종목에 완벽한 활을 시작한 김향심은 과중한 달이 련속 차례지게 되자 야심

이 울컥거리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 프로급선수들을 들이밀었다가 더 큰 참패를 당했다는 일화도 그 나날에 생겨났다. 우리는 처너무도강자의 집도 찾았다. 김향심은 나라에서 인민체육인에게 배려해준 고급살림집에서 살고있었다. 방안에 들어서니 은은한 피아노소리가 울려나왔다. 《우리 셋째딸 향심이 가 라는 거랍니다.》 그의 어머니 리정애녀성이 하는 말이였다. 어렸을 때 신의주시 본부유치원에서 꼬마 피아노연주가로 이름을 날렸다는 김향심선수였다. 우리는 한 벽면에 널찍하게 펼친 금메달들과 컵, 상장들을 바라보았다. 청소년시절 국내경기에서 받은 메달까지 합하니 정말 많았다. 김향심선수는 절세위인을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들을 가리키며 국제경기에 나가 첫 승리를 거둔 어린 가슴에 김일성형년영예상을 안겨주시고 인민체육인으로 내세워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태양의 품을 떠나 오늘의 영예를 어찌 생각할수 있랴. 하기에 국제경기에서 30개의 금메달을 쟁취한 그는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상가 편지를 올렸다. 그는 단단사연을 전해주는 금메달들을 어루쓸며 이렇게 말하였다. 《앞으로 더 많은 금메달을 쟁취하여 태권도모국의 영예를 더 높이 떨쳐가겠습니다.》 본사기자 김진혁

비약하는 조국의 모습을 보며

조국에서 뜻깊은 새해 2019년을 맞고보니 감회가 남다르다. 지난해 나는 특출한 정치실력과 강인담대한 배짱, 뜨거운 민족애를 지니고 세계정치를 주도해나가고 북남관계발전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목격하면서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 된 긍지를 가슴부듯이 절감하였다. 그리고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책들을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힘으로 물리치고 경제건설에서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가는

조국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활력에 넘쳐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를 향해 전진해나가는 조국의 기상은 우리 해외동포들에게도 커다란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있다. 온 겨레와 세인이 칭송하는 절세위인을 최고령도자

로 높이 모시어 오늘의 강대한 조선이 있고 민족의 밝은 미래도 있다. 나는 주체조국의 해외공민된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새해에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투쟁하는 기여를 해나가겠다. 재중동포 고영석



같이치고 그의 령도를 받들어 부강조국건설에 애국충정을 바쳐갈 인민들의 드높은 열의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 땅에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에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을 온 세상에 파시한 공화국이 맞이한 새해는 첫아침부터 새로운 기적과 사변을 품고 세차게 태동하고있다. 전체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말을 해도 한목소리이고 걸음을 걸어도 한걸음인 주시면 온 나라가 그 단위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열풍을 일으켜 나가는것이 일심단결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뿌리깊은 나무는 폭풍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것처럼 나라의 근본인 인민이 경에하는 원수님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받들기에 적대세력들의 그이런 제재에도 조선은 끄떡없다. 어제는 래일을 보는 거울이라 하였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안녕만을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대하처럼

본사기자 고성호

기쁨과 행복의 환희속에 밝아온 새해 2019년

- 2019년 설맞이 축하무대 진행 -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진 2018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기쁨의 파도가 굽이치는 김일성광장에서 2019년 설맞이 축하무대가 진행되었다.

수많은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이 뜻깊은 공연을 보기

위해 광장에 모여들었다.

화려한 무대조명속에 광장에 설치된 공연무대에서는 예술인들이 기쁨과 락관에 넘쳐 부르는 《설날아 내려라》, 《새해를 축하합니다》, 《인민의 축원》, 《희망넘친 나의 조국아》

등의 노래들이 연속 울려 퍼졌다. 광장을 꽉 메운 군중들은 노래를 들으며 기쁨과 흥분을 금치 못하였고 너도나도 따라부르기도 하고 어깨를 들썩이기도 하였다. 지나온 한해를 감회깊이 추억하며 미소짓는 사람들, 분출하

는 걱정을 누를길 없어 연방 환호를 터치는 청춘남녀들, 좋아라 손뼉을 치며 강종강종 뛰는 아이들로 온 광장이 푸른 물 출렁이는 바다마냥 설레었다.

특색있고 황홀한 공연이 펼쳐지는 속에 주제108(2019)년 1월

1일 0시 오색령통한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라 새해의 밤하늘가를 아름답게 장식하자 관중들의 환희의 감정은 절정에 달하였다. 흘러온 승리와 사변의 궁지높은 한해가 축포의 불보라에 어려오고 더욱 밝은 2019년의 한해가 불

꽃마다에 비껴있어 감동없이 바라볼수 없는 환희의 축포였다.

한편 광장의 한쪽에서는 《평양얼음조각축전-2019》가 개막되어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당기었다.

두드러진 조명효과속에 높이

솟아 빛나는 주제사상탑, 얼음조각, 대형축동, 각종 전광장치 등으로 눈부시게 장식된 김일성광장의 황홀한 분위기로 새해를 맞는 사람들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올랐다.

본사기자

